

부마민주항쟁 26주년 정신계승대회 “증언대회” 박정희 통치기의 국가폭력 사례

- 주 최 :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마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자료제공 :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민주공원
 - 일 시 : 2005년 10월 16일(일) 14~16시
 - 장 소 : 민주항쟁기념관 큰방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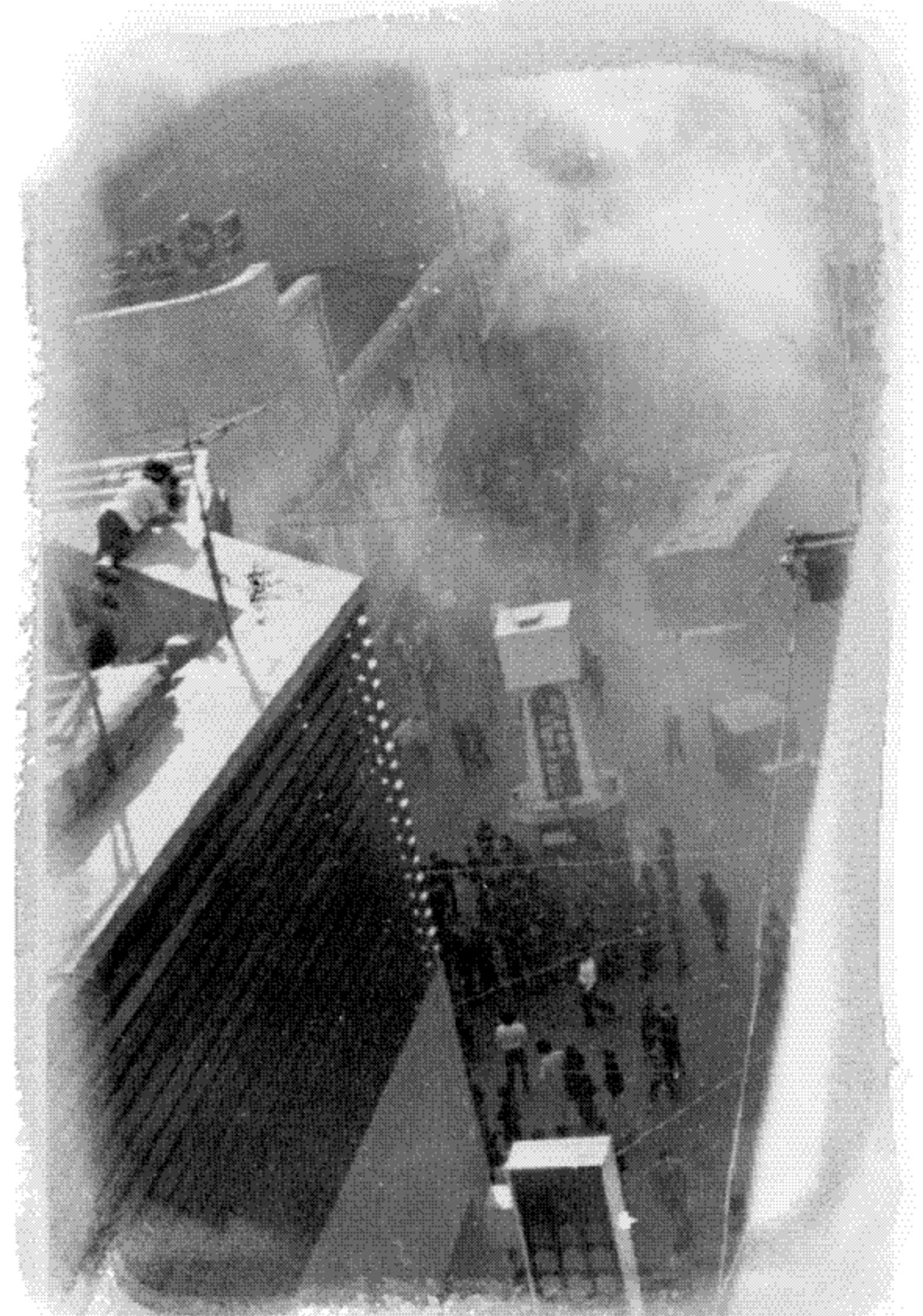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시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01.

조작 간첩단 사건

1975년 부산대 제일교포간첩단 사건

노승일

공산주의자(빨갱이) 재조기 중앙정보부

공산주의자(빨갱이) 제조기 중앙정보부



1. 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

1975년 11월 24일 국내 각 언론 매체를 통해 보도되었던 “학원침투 간첩단사건”에 연루되어 1975년 11월 1일에 구속되어 징역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 받아 1977년 11월 27일 석방된 적이 있는 나에게 2003년 6월 10일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는 “민주화운동관련자 인정 통보서”에서 “1975.3.중순경 국내의 심한 언론 통제로 인해 객관적인 시국 관련 소식을 접하기가 어려워 일본의 소식을 전해 듣고자 부산대학교에 유학중인 제일교포 여학생 김오자를 만나 국내 시국상황을 논의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9월 중순경까지 수회에 걸쳐 위 김오자를 만나 국내 민주화 문제를 토론함과 아울러 박정희 정권을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제작·살포한 사실을 두고, 당국에서 유신 반대 여론 등을 진정시키기 위해 위 김오자 등을 제일교포 간첩단으로 조작하고 신청인을 포함한 다수를 동 사건에 연루 시킴으로써 1976.8.26 국가보안법위반 등으로 징역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 받은 사실은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라목,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및 학사징계를 받은 것으로 인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 당시 중앙정보부에서 “학원침투 간첩단 사건”으로 발표하였지만 재판 과정이나 재판 이후에 확인 된 것은 전혀 관계가 없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공범으로 묶어 사건을 확대하여 발표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예로 그 당시 부산대학교 학생, 한국신학대학 학생, 고려대학교 학생, 기타 제일교포 유학생들이 연루되었는데 사건 내용을 보면 전혀 관련성이 없었다. 소위 점조직이라 할지라도 부산대학교 학생 중 한 명과 한국신학대학 학생 한 명과는 연결 고리가 있어야만 공범으로 처리할 수 있을 텐데 전혀 그런 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 또한 의문점은 공소장에 김오자가 월북하여 노동당에 가입하였다고 하였는데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사건에 연루되었던 김철현(한국신학대학 유학생)의 경우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월북 기간에 실제로는 일본에 있었다는 알리바이가 성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서는 공소내용 그대로 인정하였다는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나는 그 악랄하였던 박정희 군사 독재 정권의 하수인 중앙정보부에 의해 관제 공산주의자(빨갱이)가 된지 실로 28여년 만에 국가기관(국무총리 산하)에 의하여 조작된 사건으로 확인되었다. 8여년 동안 한국적 상황 속에서 국가보안법 전과자로 그것도 간첩단에 연루되었던 자로서 겪어야 했던 고초는 말과 글로써 표현할 수 없다. 구속되었을 당시 서울구치소에서는 국가보안법 위반자의 수인 번호 위에는 빨간색의 조그마한 네모판(아크릴 조각)을 부착하였고, 긴급조치 위반자의 수인 번호 위에는 노란색의 조그마한 네모판(아크릴 조각)을 부착하였는데 빨간 딱지 노란 딱지라고 불렀다. 그런데 교도관들도 노란 딱지(긴급조치 위반자)들에게는 반정부 인사라고 예우하여 외부 소식(뉴스)을 알려 주곤 하였는데 빨간 딱지 들은 빨갱이라고 하여 아주 출대하였다. 1977년 11월 27일 석방된 후 만났던 긴급조치 위반으로 구속된 적이 있었던 민주화 인사 조차도 나에게 자기들은 긴급조치 위반자로서 자부심을 갖고 있다면서 국가보안법 위반자에 대하여 좋지 않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런 실정이었으니 일반인들의 인식은 오죽했으랴?

2. 연행/구속

1975년 10월18일 중간고사 기간중이어서 도서관에서 시험 준비를 하고 있던 중 법정대학 학장실에서 찾는다는 소리를 듣고 학장실에 가니 정장 차림의 낯선 몇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다. 같이 좀 가야겠다고 하더니 대기중이었던 승용차를 타고 당시 거주하고 있었던 문 현동에 들려 몇 가지 책을 찾아도착하였던 곳이 그 후에 알았지만 중앙정보부 부산 분실이었다. 거기서 아무런 말도 없이 또다시 승용차를 타고 도착하였던 곳이 수영 비행장이었다. 거기서 대기중이었던 특별 비행기를 탔다. 당시 함께 연행되었던 사람은 부산대의 하일민 교수와 박준건(철학과 3학년), 김준홍(철학과 3학년), 김정미(철학과 3학년), 박명조 등 학생 4명이었다. 그런데 연행 당시에는 하일민 교수 이외는 몰랐던 사람 들이었다. 김포 비행장에 도착하여 대기 중이었던 승용차를 바꾸어 타고 도착한 곳이 그 악명 높았던 남산의 중앙정보부 5국이었다. 그 당시에는 김포 공항인지 남산의 중앙정보부 5국인지는 전혀 몰랐다. 왜냐하면 난생 처음으로 상경하였기 때문이다.

10월18일 연행되어 11월1일 저녁 구속될 때까지 보름 동안 발가벗기기, 폭행, 폭격기 고문, 불침고문(잘 안 재우기), 심리적 고문(가족 체포 예고, “너 같은 놈 죽이고 자살로 처리하면 끝이야.”, “지하실 가서 더 당해 볼래.” 등의 폭언, 폭행), 꿰어앉혀서 허벅지와 장 단지 사이에 각목을 끼우고 수사관이 허벅지 위에 올라서서 다리 밟기, 귀잡이 고문(일명 빙빙 고문), 손가락 사이에 불펜을 끼우고 손위에 수사관이 올라서기 등의 고문을 통해 관제 빨갱이가 만들어졌던 것이다. 김오자가 월북하여 김일성을 만나고 온 거물급 간첩인데 왜 신고하지 않고 방조하였느냐는 것이다. 그 이유는 김오자가 1975년 5월 월남전 종전 후에 월남이 패망한 것이 아니고 민족 통일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하였는데, 그 말을 들으면 간첩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신동아”, “씨알의 소리”, “창작과 비평” 등을 불온서적으로 취급하였다. 또한 당시 일본 “세카이(世界)” 잡지를 발행하였던 이와나미에서 발행한 문고판 “한국으로부터의 통신”을 김오자에게 부탁하여 읽어 보았는데 그런 책을 보는 사람은 무조건 간첩이고 공산주의자라는 것이다. 더욱 한심한 것은 본인이 조사 받으면서 내가 아주 어릴 때에 아버지가 군대에서 순직하였기 때문에 어렵게 성장하였다고 하니 그것이 또한 공산주의자가 되기 쉬웠다는 것이다.

중앙정보부에서 고문 당하며 조사를 받고 있는 동안 가족들은 나의 행방을 몰라 배방으로 수소문하면서 당시 중앙정보부 대구 분실에 근무하였던 아버지의 친구(작고) 분을 찾아가 알아보니 구속 당할 것을 각오하고 있으라는 말을 하였고, 당시 정치외교학과 안병민 교수(작고)는 당시 수사단장이 친구이었는데 그를 통하여 확인해 보니 청와대에서 지시한 사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하였다고 회고하였다. 조사를 받을 때 수사관들이 자기들 끼리 청와대에 보고한다고 말하였다. 이런 사실들은 청와대에서 조작을 지시한 기획 수사이었음을 알 수 있다.

1975년 11월 1일 서울구치소에 구속된 이후 1심 재판이 끝나는 1975년 4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독방에서 보내야 했으며 가족 면회와 독서, 운동 등 모든 것이 금지 되었다. 따뜻한 남쪽 지방에서만 생활하였던 나로서는 독방에서 유난히 추웠던 75년의 겨울은 정말 견디기 힘들었다. 하루 밤에 몇 차례나 잠이 깨어 추위 때문에 잠 못 이루었던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1심 재판이 시작되기 몇 일전에 중앙정보부의 수사관이 면회를 와서 재판이 시작되면 공소 내용을 부인하지 말고 시인하여 재판부의 동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부드럽게 말하였지만 실제로는 부인하지 말라는 협박이었다. 1975년 3월 2일부터 1심 재판이 시작되었는데 나는 항의의 표시로 삭발하고 법정에 출두하였다. 공소 내용은 김오자가 간첩임을 알면서도 박정희 정권을 반대하는 유인물을 살포하여 간첩을 방조하였다는 이유로 간첩 방조죄로 기소되었는데 그 내용은 1975년 5월 월남전 종전 후 월남이 패망하고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당시 부산대학교 사학과에 재학(3학년) 중이었던 김오자(제일동포 유학생)는 월남이 패망한 것이 아니고 민족 통일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 것을 보면 간첩임을 알 수 있는데 정보 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오히려 김오자와 함께 반정부 유인물을 교내에 살포하여 간첩을 방조하였다는 것이다.

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의 부장 판사가 당시 경남 밀양군 하남면 남전리 출신으로서 나의 고모부(작고)의 일가 이었는데 집에서 고모부를 통하여 항소심에서 석방될 수 있도록 부장판사에게 간청하여 보았는데 석방시킬 수도 있지만 뒤가 겹쳐서 그렇게 판결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는 것을 석방된 후 들었다. 이것은 당시 정치적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는 한 단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기억으로는 2002년도 "오마이뉴스" 자료에 의하면 월남은 패망한 것이 아니고 월남 민족의 통일로 보아야 한다는 미국 기자의 기사를 읽은 적이 있었는데 그 자료("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전문위원에게 제출한 적이 있음)를 다시 찾지 못하여 첨부하지 못함이 아쉽다.

1977년 1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어 대전 교도소로 이송되어 국가보안법 위반자들만 수용하는 특별 사동에서 생활하였는데 거기서 또한 차례 어려운 고비가 있었다. 그 당시 대전교도소에는 전향 담당자가 있었는데 공산주의자에서 민주주의자로 전향을 하라고 강요하였다. 몇몇한 사람을 빨갱이로 만들어 놓고 전향을 강요하니 정말 기가 찰 노릇이었다. 전향을 거부하니 1인용 감방에 무더운 여름 날씨가 6~7명을 집어 넣어 무더위에 고통 당하게하며, 비좁아서 잠을 잘 수 없게 만들었다. 다른 재소자들의 경우 30년 이상 구속 당한 분들도 상당수 있었는데 전향 거부로 인하여 고문 당하여 옥사 한 분들도 있었고 일반 형사범 들을 같은 감방에 수용하여 폭행하거나 못살게 괴롭힌 적도 부지기수 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1977년 11월 27일 석방되었다.

3. 보안관찰 대상자

석방된 후에도 사회안전법에 의해 보안관찰 대상자로 결정되어 3개월에 한번씩 그 동안의 생활에 대하여 관할경찰서 정보과에 신고하여야 하며, 거주지를 떠날 경우 반드시 신고하고 떠나야 하였다. 1985년 8월 31일 학교를 졸업하고, 신원 이상으로 취업하지 못하다가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호구 지책을 위하여 부산을 떠나 연고가 전혀 없는 서울의 신정유업(株) - 지도 교수의 형님이 사장이었던 호남정유(株)의 계열사-에 겨우 취직(35세 신입사원)하여 생활하면서 수 차례 보안관찰 기간이 갱신된 후에야 겨우 보안관찰 대상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1977년 11월 27일 석방된 후 1여년 집에서 쉬다가 1978년 12월경 상속 받은 토지를 처분하여 부산시 중구 보수동 책방 골목에서 서점을 운영하다가 당시 사회과학 서적 출판에 힘입어 1979년 7월 부산대학교 신 정문으로 이사하여 사회과학 서적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책사 태백산맥"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출판되었던 "학교는 죽었다"는 책 때문에 동래경찰서에 연행되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책을 구입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 후 이런 불온한 서적을 취급하지 말라는 정보과장의 훈시를 들은 후에야 집으로 돌아오게 된 적도 있었다.

서점을 운영하던 중 1979년 10월 16일부터의 부마민주항쟁과 관련 결론 한지 6 개월 만인 1979년 10월 30일 두 번 제 구속(긴급조치 9호 비상계엄포고령 위반)되어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복역 중 1981년 3월 3일 특별사면으로 석방되었으며, 두 번의 구속으로 인한 생활의 빈곤으로 부산에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호구지책을 위하여 서울로 이사할 수 밖에 없었던 점은 지금도 아쉬운 점으로 남아있다.

4. 현재의 삶

경제적으로 어렵긴 하지만 서울 서초구 잠원동 75-15에서 "월드플라워(24시간 꽃배달 서비스)를 운영하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관악구 협의회 감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성산교회 시무장로, 열린우리당서울시당 관악구당원협의회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가족 사항으로
처(김삼미:월드플라워 공동 운영),
자(노형래: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의학부 5년),
자(노향희: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4년)임.

주소:서울 관악구 봉천11동 196-219 원당하이츠 202호
전화번호:02)888-6174(집),02)535-8254(가게),mobile:011-9899-6174